

# 신제품 개발, 식음료 용기 업계 선도

## NB 캔 국내 첫 도입



한 평 식

(주)금강B&amp;F 대표이사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간의 경쟁과 유사품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는 신제품, 신용기, 신디자인을 개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기업이 항상 남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아이টে임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선 보다 빠르게 세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동종업계를 선도해 나아가 한다.

1988년 설립 이래, 품질 및 고객만족 선두에 우뚝 서고자 150개 이상의 새로운 음료를 국내 시장에 선보여 온 (주)금강B&F(대표이사 한평식)를 지난 달 찾았다.

금강B&F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와 충북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에 공장을 두고 80여명의 종업원이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음료 제품 위탁 생산업체이다.

또한 건강음료 및 각종 기능성 음료 개발과 캐릭터 음



▲ (주)금강B&amp;F의 OEM 생산제품



▲ 충북 충주시 이류면에 위치한 (주)금강B&F 사업장

료 및 NB(New Bottle) 캔의 보급으로 음료의 패션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페트(PET) 색 필러(sac filler) 생산 설비를 갖췄는가 하면 핫 캔(hot can) 및 PT 캡을 개발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고구마 농축액 제조법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으며 250mm 사각병에 대한 의장등록을 마쳤다.

현재 NB 캔, 캔, Bottle, PET, 통조림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PET 시설에선 알로에 및 과즙 음료를 각각 하루에 6만5000개씩, 병 라인에서는 알로에 및 과즙 음료를

각각 15만개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커피 12만개를 레토르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

캔 설비에서는 커피, 식혜(레토르트)와 과즙 음료를 각각 20만개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NB 캔 라인에서는 과실음료 뿐 아니라 녹차, 커피, 기능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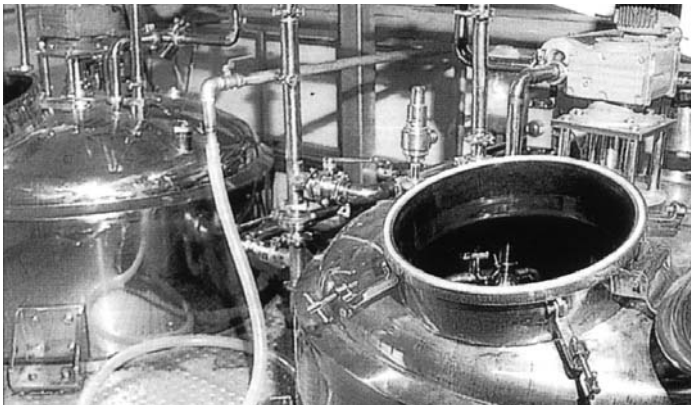
금강의 기술력은 대기업들로부터 인정받아 해태음료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알로에 모닝을 시작으로 백도복숭아 등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주), 남양유업(주), 보령제약(주), 동원F&B, (주)자넵, (주)일화, (주)광동제약 등과 거래하고 있다.

최근 NB 캔 도입으로 이목을 끌었던 (주)금강B&F는 신용기 개발, 캐릭터 음료 개발로 음료 시장의 패션화 주도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음료 캔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NB 캔의 경쟁력을 일찍감치 파악한 (주)금강B&F는 신속하게 일본 다이와 제관과 지난 해 독점판매 계약을 맺는데 성공, 올해 초부터 NB 캔 녹차음료 차에

# KEUMKANG B&F



▲ (주)금강B&F 생산설비

인을 출시한 동원F&B에 공급했다.

현재 금강B&F는 다이와 제관으로부터 NB 캔을 수입, 내용물을 넣고 라벨을 붙인 후 가공을 통해 납품하고 있다.

최근 동원F&B의 '차애인'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NB 캔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반 캔 용기의 장점인 내용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재활용성이 높다는 점 외에도 리캡 기능을 도입, 휴대가 편리한 PET 용기와 캔

의 장점을 합친 NB 캔은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도록 패션성을 높였고 넓은 디자인 공간 확보로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다.

이에 여러 식음료 업체에서는 금강B&F가 국내에 첫 도입한 NB 캔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동원F&B 뿐만 아니라 원두커피전문업체인 (주)자텔에서도 NB 캔을 사용한 커피음료를 출시했다.

이밖에 금강B&F는 지난 9월에 출시된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사용한 '비락식혜1.8l'의 생산라인을 마련, 한국야쿠르트에 납품하고 있다.

식혜음료의 경우 캔 용기보다 대다수인데 반해 한국야쿠르트의 '비락식혜1.8l'는 기존 제품과 달리 용량을 크게 늘리고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사용했다.

고열에서 견딜 수 있고 산소 투과 억제층이 있는 폴리프로필렌 용기는 내용물의 변질을 막고 맛의 보존성이 뛰



▲ NB 캔 국내 첫 도입



▲ (주)금강 B&F 공장내부 모습

어나다.

국내 처음으로 출시된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사용한 식혜 음료는 현재 금강B&F만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항상 신디자인 신개념의 용기로 마케팅을 펼쳐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외국 식품 박람회에도 자주 참가하는 한평식 사장은 세계 식품·음료 트렌드를 남보다 빠르게 파악하며 국내 시장에 도입하고 있다.

한 사장은 “금강B&F는 항상 좋은 품질을 만들고자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금강B&F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경쟁력을 갖춘 OTM(Original Technology Manufacturer)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항상 신기술·신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긴 위해선 신제품 개발이 급선무라는 것.

한 사장은 내년 한해 매출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 천만불 매출 달성도

바라보고 있다.

한 사장은 “수출업체에 대해 정부 및 관련 단체가 보다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신제품 개발 지원과 무자비한 모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화 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금강B&F. NB 캔과 같은 신용기를 국내에 도입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식음료용기 문화를 선도할 금강B&F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